



15세기 <능엄경언해>를 간행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고 의 한글 금속활자.

最古 한글 금속활자 '능엄경언해' 간행 을해자 국립중앙박물관 4일 공개

불서(佛書)를 간행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고(最古)의 한글 금속활자가 발견됐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부는 1월 4일 '한글판 <능엄경>인 <능엄경언해, 1461년 作>를 간행할 때 사용한 을해자(乙亥字)일 가능성이 큰 금속활자 30여개와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시집인 <두시언해, 1481년 作>를 찍을 때 사용했던 한글 금속활자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조사를 담당한 이재정 학예연구사는 "30자를 전자현미경 등으로 확대 촬영해 분석한 결과 <능엄경언해>나 <두시언해>의 한글 자체(字體)와 똑같았다"며 "나머지 720여 활자도 1668년에 만든 활자로 간행한 각종 언해본의 자체와 같아서 1668년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학예연구사는 또 "조선시대 최초의 금속활자인 계미자(1403년)나 세종시대의 갑인자(1434년)는 실물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을해자로 확실시되는 이번 한글 금속활자가 국내 최고의 금속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고려시대 것으로 전해지는 한문 활자 2점이 남북한에 한 점씩 전하고 있으나, 출토지가 확실치 않고 수량이 워낙 적어 실제로 인쇄에 사용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노병철 기자

홍보·질 높은 서비스가 열쇠

1일부터 공원 입장료 폐지... 문화재관람료 징수·인상 놓고 곳곳서 '마찰'

조계종 "유지 관리 비용 확보 위해 불가피" 대사회적 설득 시급

1월 2일 보은 법주사 매표소 앞. 법주사측은 '사적 및 명승 제4호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이며,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의거 입장료를 징수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매표소 직원 사명열씨는 "입장객 절반가량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소식을 들은 후 공짜로 입장하는 줄 알았다가 문화재관람료를 받는다는 말에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상은 하동 쌍계사, 구례 천은사 등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사찰에서 등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법주사측은 "일반 언론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해 관람객들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예견된 '문제' 불교계가 정해진 새해 벽두부터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1일부터 국립공원입장료가 일제히 폐지되면서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일정부분 인상한 금액으로 단독 징수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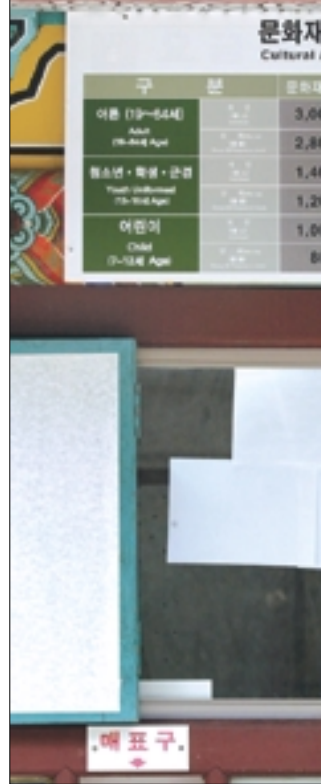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사찰은 67곳. 이 가운데 22곳은 국립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공원입장료와 통합 징수를 해 왔던 이들 사찰 중 몇 곳이 일반 관람객 및 등산객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항의하는 사람들 일부는 "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측은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측에 따르면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507곳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수사찰의 13%만이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 또 67곳 관람료 사찰의 문화재를 유지하는데 연간 807억원이 필요하며, 그 중 관람료를 통해 320억원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 징수된 관람료는 문화재를 보수 관리하고, 사찰 및 주변 탐방로를 정비하며, 문화재 보전을 위한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재관람료 인상이 문제에 불을 붙였다. 구례 화엄사와 보은 법주사는 2200원에서 3000원으로, 공주 동학사와 갑사는 1600원에서 2000원으로, 평창 월정사는 18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판단돼 오랜 세월을 거쳐 자리잡은 곳이다. 단 사찰과 거리가 너무 먼 경우 문화재관람료 징수 최적위치를 재평가하고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약 6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인쇄 백담사, 구례 연곡사,



보은 법주사 매표소 앞, 법주사측은 을해부터 문화재관람료를 2200원(성인)에서 3000원으로 800원 인상에 징수하고 있다.

사찰 경내지가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책은 없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조계종 총무원의 일관된 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예견된 사안이었으며 대처할만한 시간을 여유가 있었지만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폼에 와 닿는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문화재관람료 묻고 답하기' 등의 내용이 들어있는 리플렛을 제작해 전국 사찰에 22만부 정도 배포했고, 불교계 신문 등을 통해 '국립

공원 입장료 폐지와 문화재관람료 단독징수에 따른 입장'을 표명했지만, 보다 대사회적으로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매표소 위치도 사찰 입구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정부분 재정적인 감소가 예상되지만 포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한다면 실보다 득이 많다는 것이다.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불거지자 조계종은 "유럽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관람료는 7300원, 노트르담 성당 관람료는 6600원"이라며 "우리나라 문화재관람료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찰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문화재 홍보물 제작 및 비치, 탐방 시스템 정비, 문화유산 해설 안내원 상주 등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문화재 관리 및 보존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일이다. 이 외에도 문화재관람료 징수 금액을 공개해 투명하게 처리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계종 재무부장 정만 스님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하다면 매표소를 이동하거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폐지해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며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정부로부터 받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명우·남동우 기자

금주 36면 발행합니다

불교계 각 단체 새해 계획	A6면
• 신년 인터뷰 '선시론 연구' 송준영 시인	A9면
어린이 포교 모범 사찰 문화 포교 모범 사찰	A10면 A11면
• 2007년을 뒤돌아보자 우승택 삼성증권 호텔신라지점장	A15면
저팔계를 닮으면 행복해 진다	B1면
• 선지식을 찾아서 법주사 화주 혜정 스님	B7면



혜정 스님



송준영 시인

알림

제12회 신행수기 공모 심사 못해 원고 지면에 게재·기념품 드립니다

본지는 창간 이후 12년 동안 신행수기 공모를 통해 깊은 감동을 독자와 공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지난해말 제12회 신행수기 공모에 응모한 작품들을 심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응모해주신 많은 불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내주시던 원고중에서 선별해 본지의 '부처님 감사합니다' 코너에 게재하고 기념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입장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어 국민의 진정한 휴식처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국립공원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교계는 1996년부터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고 있는 국립공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의 의미를 모든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2007년 1월1일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관람료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을 지키고자하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문화재관람료는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1962년 해인사를 시작으로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정부에서 국립공원 제도를 만들고 이 비용을 충당하고자 1970년부터 속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입장료를 징수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찰은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데 앞장서 왔으며, 현재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역시 문화재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됩니다.

67개 관람료 사찰의 문화재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807억이 필요하며, 그중 관람료를 통해 320억 정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 507곳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보수사찰의 13%만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관람료는 문화재를 보수 관리하고, 사찰 및 주변 탐방로 정비, 문화재 보전을 위한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실천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그 나라의 전통문화 유지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인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인 부담이 관람료인 것입니다. 세계 주요 문화재 관람료를 비교해 보면 우리 문화재 관람료는 턱없이 적은 편입니다.(예를 들면 유럽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관람료가 7,300원, 노트르담 성당 관람료 6,600원, 일본의 동대사 관람료가 5,000원 등) 외국의 유산에 비해 우리의 문화유산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전혀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재관람료를 내는 것은 우리문화재를 보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입니다.

자연과 사찰은 한 몸으로서 소중한 자연문화 유산입니다.

사찰은 수천년 동안 우리민족, 우리산하와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산과 사찰은 하나이며, 그 가치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찰과 스님들이 산을 지켜왔으며,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가 사찰 경내지로서 사찰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있는 문화로 자연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사찰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 지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립공원 내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하고 있으며, 사찰은 그 문화재를 지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찰은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자연환경 지킴이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연문화 유산을 잘 가꾸어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것입니다.